GLOBAL DEFENSE NEWS

제888호 2014.1.24.

무기체계 소식

감시정찰	미 육군, BAE사와 3세대 공통 유도탄 경보 체계 납품 계약	2~3
방호·유도무기	미 록히드마틴사, LRASM MK 41 수직발사 체계 인터페이스 평가 완료	4
기 동	미 육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GCV 사업, 예산 삭감으로 취소 가능성 증대	5
함 정	인도 해군, 최초의 자체 제작 핵추진잠수함 곧 해상시험 착수	6~7
항 공	중국, 세계 최대의 수륙양용 항공기 Jiaolong-600 개발 중	8~9

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정보센터는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정보와 방산시장 정보를 수집, 분석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(DTiMS)와 **국방과학기술정보**(격월간), **주요국 국방·군사 동향 시리즈**(연 3회), **세계 방산시장 연감** 등의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
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www.dtaq.re.kr 02-2079-1552, 1560

미 육군, BAE사와 3세대 공통 유도탄 경보 체계 납품 계약

- BAE Systems사가 3세대 공통 유도탄 경보 체계(CMWS)의 미 육군 인도 계약을 수주했음 (3,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) ※ CMWS : Common Missile Warning System
  - BAE사는 300대 이상의 3세대(Gen3) CMWS 장치들을 공급할 예정
  - 이로써 육군의 전체 3세대 조달품 수량은 1,300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음

- AN/AAR-57 CMWS는 고도로 자동화되고 긴밀하게 통합된 적외선 대응체계 세트로서, 회전익 항공기, 수송기 및 전술 항공기를 적외선, 지대공 및 공대공 유도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음
  - 이 3세대 체계에는 소화기 사격을 감지하여 회피하기 위한 적 포화 탐지기와 임무 사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록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

▶ CMWS는 회전익 항공기, 수송기 및 전술 항공기에 대한 IR 위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

목차로 이동

– 기존의 채프, 플레어 및 RF 유인체 발사장치(decoy dispenser)와 레이저 지향성 적외선 대응 체계(DIRCM)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고 있음 ※ DIRCM : 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s

– 또한 호스트 플랫폼에 가해지는 유도 및 비유도 위협들에 대한 경보 신호와 상황인식 능력을 제공하고,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위협의 위치를 찾아내 대응 체계를 발사함

- CMWS는 전장 시험을 거쳤으며, 2,100대 이상이 납품되어 30여 종의 상이한 플랫폼에 통합되었음
- 3세대 체계는 향후 2년 동안에 1,000개가 넘는 미 육군 플랫폼에 야전 배치될 예정이며, 아프가니스탄의 아파치(Apache), 카이오와(Kiowa) 및 블랙호크(Blackhawk) 기체들에는 이미 현장 설치가 시작되었음
- CMWS 기술은 미군의 헬리콥터 편대를 보호해 줄 육군의 차세대 공통 적외선 대응 체계(CIRCM)에 위협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

※ CIRCM : Common Infrared Countermeasures

목차로 이동

| 출처 | BAE to supply third-generation common missile warning systems to US Army, army-technology.com, 2014.1.17.

미 록히드마틴사, LRASM MK 41 수직발사 체계 인터페이스 평가 완료

- 미 록히드마틴사는 기존 함정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장거리 대함 유도탄(LRASM)을 모든 MK41 수직 발사 체계(VLS)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하였음
  ※ LRASM : Long-Range Anti-Ship Missile ※ VLS : vertical launch system
- 금번 시험에서 LRASM과 전술 토마호크 무기 통제 체계(TTWCS), MK 41 VLS 및 Mk-114 부스터 하드웨어는 수정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LRASM의 준비 및 발사에 필요한 모든 전기 인터페이스 및 자료 교환 기능을 제공하였음 ※ TTWCS : Tactical Tomahawk Weapons Control System
- LRASM은 미 해군 및 공군 전투원들의 대함 공격용 무기 요구에 부응하도록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것으로, 적의 위협을 탐지하여 파괴하기 위해 다중 감지기, 무기 데이터 링크 및 향상된 디지털 항재밍 GPS를 갖추고 있으며, 주야간 · 전천후 자율 순항이 가능함
- 록히드마틴사는 DARPA 및 미 해군연구처와의 협력 하에 해상 표적을 상당히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LRASM 지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을 개발 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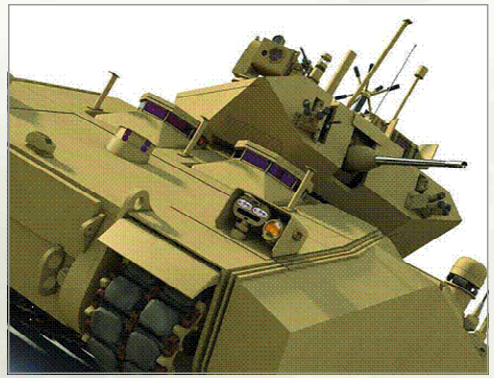
목차로 이동

| 출처 | Lockheed assesses LRASM MK 41 vertical launch system interface, naval-technology.com, 2014.1.20.

미 육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GCV 사업, 예산 삭감으로 취소 가능성 증대

- 1월 8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14년도 종합지출법안(여러 정부 부처의 예산을 종합한 예산안)에 의해 미래의 육군을 위한 '필수 항목'으로 홍보되어 왔던 GCV(Ground Combat Vehicle) 사업이 거의 취소되다시피 함
  - 육군은 2014 회계연도에 5억 9,200만 달러를 요청했으나, 사업 폐기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1억 달러만 승인 ※ Army Times지는 2013년 8월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

- 육군은 보병 7명을 수송할 수 있는 현재의 Bradley 보병전투장갑차를 대신해서 9명 분대전원을 수송할 수 있는 GCV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나, 2013년 4월 17일자 의회 조사국(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) 보고서는 GCV 사업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함
  - 2013년 4월의 의회 예산처 보고서에서 육군이 29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더 많은 Bradley 보병전투장갑차나 외제 장갑차들로 대체할 것을 제안
  - BAE Systems사의 GCV는 무게가 강화된 M1A2 전차에 맞먹는 70톤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것도 문제



▶ BAE사의 미 육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GCV 사업용 장갑차

목차로 이동

| 출처 | Ground combat vehicle budget slashed, cancellation more likely, armytimes.com, 2014.1.15.

인도 해군, 최초의 자체 제작 핵추진잠수함 곧 해상시험 착수

- 인도 최초의 국산화 제작 핵추진잠수함 Arihant함이 현재 진행 중인 정박인수시운전(HAT)을 마치고 진수하여 몇 주 이내에 해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말에 시험을 종료할 계획임

  ※ HAT : Harbour Acceptance Trial

- Sarat Babu 인도 해군 소장은 PTI지와 갖은 인터뷰에서 Arihant함의 시험일정을 언급하면서 "Arihant급의 두 번째 잠수함인 Aridhaman함은 현재 Visakhapatnam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선체 건조 작업 중이다. Arihant함에서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해상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서 인도는 육상, 공중 및 해상의 3원 핵전략을 완성하게 된다."라고 Arihant함 실전배치의 의미를 부여하였음

▶ 인도가 최초 국산화 제작한 핵추진잠수함 Arihant함

목차로 이동

국방기술품질원
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
- Arihant함은 대함·대지 순항미사일과 어뢰 뿐만 아니라 K-15 수중발사탄도미사일까지 모든 형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잠수함으로, 승조원은 95명, 최고속도는 수상 15kts, 수중 24kts이며 K-15 미사일은 길이가 10.4m, 무게가 6.3톤이고 5개의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음

- 또한 인도는 최근에 러시아와 15억 달러 규모의 2번째 Akula급 잠수함 임차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

| 출처 | INS Arihant set for sea trials, naval-technology.com, 2014.1.22.

목차로 이동

중국, 세계 최대의 수륙양용 항공기 Jiaolong-600 개발 중

- 중국이 최근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대형 수륙양용 항공기 Jiaolong-600의 모델을 공개함
  - 이 신형 항공기는 4개의 터빈 프로펠러를 갖춘 단일 선체의 복합 구조용(comprehensive rescue) 항공기로, 크기는 에어버스(Airbus) A320과 비슷함
- Jiaolong-600의 최대이륙중량은 48메트릭 톤(metric ton)으로서, 이는 현재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수륙양용 항공기인 일본 US-2의 최대이륙중량 47.7메트릭 톤을 능가함
- Jiaolong-600은 시속 555km의 순항속도와 5,300km의 최대항속거리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, 20메트릭 톤의 물을 불과 12초 만에 끌어올릴 수 있으며, 구조 임무 시에 최대 5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음
- 중국은 Jiaolong-600을 2009년에 Harbin SH-5 계열의 마지막 세대 수륙양용 항공기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, 1980년대에 운용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은 구조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음
- 수륙양용 항공기의 세계 시장은 일본의 US-2, 러시아의 Beriev Be-200 및 Be-103, 캐나다의

목차로 이동

Bombardier 415 및 프랑스의 Akoya가 점유하고 있음

- Jiaolong-600에 대한 중국의 수요 물량은 60대인 것으로 추산되며, 해외 시장용의 다른 모델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

▶ Jiaolong-600 형상 그림

목차로 이동

| 출처 | China developing world's largest amphibious plane, wantchinatimes.com, 2014.1.19.